

일본도 제작의 역사

헤이안 시대(794~1185) 말기에 이르기까지 곧고 휘어짐이 없는 칼(직도, 直刀)을 수세기에 걸쳐 사용했지만, 이후 가늘고 곡선을 그리는 외날칼(곡도, 曲刀 및 만도, 灣刀)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도의 원형입니다. 마상 전투를 위해 개발된 칼인 곡도(曲刀)는 기술 향상에 따라 긴 칼몸(도신)이 잇따라 개발이 되었고, 난보쿠초 시대(1336~1392)에는 그 길이가 약 90 cm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2 세기 동안 전쟁터에서는 보병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긴 칼은 야전용 짧은 칼(우치가타나)로 대체되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 접어들며 오랜 기간 평화로운 시대가 이어지자, 도검은 무사들의 특권적인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일본도 장인들은 오사카와 에도에 대장간을 두고, 무기이자 화려한 장식을 두른 예술품이었던 칼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876년에 폐도령(廢刀令)이 발령되면서 민간인(서민과 옛 무사)이 도검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고, 일본도 장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제작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예술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도 제작 기술을 지키기 위해 1906년, 황실에서는 초대 갓산 사다카즈(1836~1918)와 미야모토 가네노리(1830~1926)를 공인 일본도 장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1939~1945)이 끝나자 도검을 소유하는 것도, 제작하는 것도 불법화되었습니다. 이에 예술적 가치가 있는 도검이 파괴되는 것을 우려한 전문가들이 1948년에 일본미술도검보존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이윽고 미술품으로 정식 등록된 도검은 예외적으로 소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